

##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 3.1절 제 77주년을 맞으며 “성도의 신앙 본받아”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할 때

삼일운동은 우리민족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지 9년째 되는 해인 1919년에 일제의 혹독한 식민정치에 반발하여 민족의 자주독립을 부르짖으며 일으킨 거족적인 민족독립운동이다.

일본의 탄압이라는 내적요인과 1차 대전후 변화하기 시작한 세계질서의 재편성 분위기를 주변적 요인으로 하여 일어난 삼일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이 운동을 불붙이는 데 앞장 선 민족대표 33인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첫날 전국의 9개 지역에서 발발한 이 운동이 서울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모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삼일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민족의 보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인식 하에 삼일운동의 시작 뿐 아니라 전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차 심해졌다. 성도들은 삼일운동에 참여하는 일은 고난이 예고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목숨

을 걸고 앞장 섰던 것이다. 일제 하에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의 염원은 완전하고 자주적인 회복이요, 통일조국의 재건이었다.

붕괴위기에 처한 북한 동포의 문제, 전쟁의 위협, 독도의 문제, 4월에 있을 총선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절실히 느껴지는 때에 맞이하는 제 77주기 3.1절. 민족의 회복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환란과 핍박 중에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신앙을 지켜온 믿음의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겨 보고 이를 오늘에 구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나라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되되 무엇보다도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열 명만 있어도 그 열 명을 보고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다.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열 명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지탱될 수 있을 것이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지켜온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사람의 의인이 되자.



기대와 감사로 맞는 새 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146편 5절)

## ■ 슈투트가르트에서 온 편지

### 사랑하는 서울교회 가족에게 드리는 글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리고 있는 로잔총회는 160개 회원국 중 50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세계복음화운동에 대한 미래전략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매우 중요한 모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김치(KIMCHI)신학세미나는 로잔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중 하나로 한국교회만의 프로그램이 아닌 로잔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분과토의에서 활발히 개진되어 총회 마지막날 결의안으로 안건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도착한지 며칠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몇 주가 지난 느낌이 드는 것은 그곳에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부 교회학교의 겨울 프로그램도 잘 마쳤을 터이니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많은 열매 기다리고 싶습니다.

지금쯤 이곳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 - 사라진 잠을 잡을 수도 없고 하여 엎드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 하나 떠올라 이렇게 필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엔 이곳 시장이 초청한 만찬에 참석하게 되고 저를 포함한 일곱나라 대표들이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저의 사역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피차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며 불비례합니다.

이종윤 목사

■ 지상강좌

# 성경적 통일론

이종윤 목사

■...이 글은 22일에 대학부 수련회에서 이종윤 목사의 특강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 민족의 대숙원은 50년간 해결하지 못한 남북한 통일의 문제입니다. 통일문제에 대해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 I. 성경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이스라엘 민족은 단일민족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은 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고,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추대를 받으면서부터 이스라엘에는 왕이 둘이 되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BC 926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극하면서 2차로 분단이 됩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시도했던 통일노력은 무력통일론이었습니다. 분단 직후 르호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워 무력통일을 달성하려고 18만의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력통일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왕상 12:21, 대하 11:1-4). 하나님께서 이를 만류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는 뺏고 빼앗기는 일이 거듭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의 아합 사이에는 한 때 화해도 있었습지만 화해무드는 잠깐 유지되었을 뿐 극렬한 대립의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740년경 베가 왕은 아람왕 르신을 끌어들여 유다를 쳐들어갑니다(왕하 16:5, 6). 위기를 느낀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앗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앗시리아는 아람을 점령하여 르신을 죽이고 이스라엘 북쪽 지역까지 점령하여 지배합니다. 주전 733년 앗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애굽을 믿고 앗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던 것을 거절하다가 앗시리아 침략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외세에 의존하다가 완전히 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자주독립을 하지 못하고 앗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단 후 약 200년 동안 공존을 할 수 없는 비극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힘의 우위만을 찾는 무력으로 이기려는 200년동안 힘을 소모했습니다. 무력통일의 노력은 국력만 소모했을 뿐 완전 통일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력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력은 무력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 II. 역대기에 나타난 통일사상

### ① '온 이스라엘' 사상

역대기의 저자는 이 사상을 강조하면서 죽



보를 기록할 때에 남유다 뿐 아니라 북왕국도 포함하여 12지파를 다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시킵니다(대상 11:1). 이것을 요즈음의 표현으로 하면 역사의 정통성(正統性)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을 북왕국의 왕으로까지 인정한 것은 역대기에 나타난 중요한 신학적 논지입니다. 이것은 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우리는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북한이나 중국의 형제들을 우리 민족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란 인구면에서는 12지파를 다 포함하고 있고, 지리적인 면에서는 애굽의 시홀 시내부터 하맛까지를 일컫습니다(대상 13:5). 역대하에서도 남왕국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이라 칭한 것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11:3, 24:5, 28:23, 32:1). 여로보암의 박해를 피해 내려온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주해 온 백성들도 여전히 북왕국을 자신의 나라로 주장합니다(대하 11:16). BC 722년 북왕국이 앗시리아에 의해 망한 이후 유다의 히스기야왕은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브엘세바에서 단가지 파발꾼을 보내었는데 그 이후 이스라엘의 경계는 '브엘세바에서 단가지'로 정해졌습니다(대하 30장).

요시야 왕은 유다 지역 뿐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온 이스라엘 땅을 종교개혁의 영역으로 보았습니다(대하 34:6-34). 성전보수를 위한 헌금도 온 이스라엘이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대하 34:9). 또 그들은 유월절도 함께 지켰습니다(대하 35:18).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사상'은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고, 통일원리에 가장 기초된 사상이었습니다.

### ② '한형제' 사상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서로 싸울 때 예언자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군사동원을 만류합니다(대하 11:4, 28:8, 11, 15). 나라의 분단은

정치지도자나 몇몇의 집권자에 의해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분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한 백성, 한형제이기 때문입니다.

### ③ '한 하나님 사상'

유다의 하나님은 아직도 북 이스라엘 왕국과 백성들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의 중요한 사상입니다(대하 13:12, 28:10, 30:8). 하나님은 북쪽에서도 역사하시고, 남쪽도 주관하십니다(대하 22:7). 북왕국은 결코 하나님 없는 이방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형제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자세를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북한에도 계십니다. 역대기에는 북왕국 역사가 실려있지 않는데 그것이 남북의 분리사상이기보다는 오히려 민족통일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 한왕국 체제로 통일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비합법적이라 생각되는 북왕국의 역사는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포로 이전의 기록인 역대기서 뿐 아니라 포로생활 이후의 기록인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도 여전히 '온이스라엘' 사상을 주장합니다.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온 이스라엘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집권자들 종교혼합주의자들, 이 언약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별치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상은 다윗 왕조로 근거한 것을 강조한 것은 남유다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이상형 다윗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 III. 예언자들의 통일사상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 여호와께서는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다투는 자들을 화해시키신다고 했습니다(사 11:16-11).

호세이는 통일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와 능력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호 1:10-11).

바벨론의 포로상태에서 놓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렘 3:18). 예레미야는 또한 통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바벨론 포로시대의 예언자 에스겔은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백성의 공동의 뿌리에 의해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지배권력(유다와 에브라임)의 이질성 때문에 민족이 둘로 나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겔 36:16-17) 그가 말한 통일된 나라 왕 다윗은 인간 다윗이 아닌 메시아의 도래를 의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남북이 무력으로 대치를 하는 상태에서는통일이 어려우므로, 무력의 상태가 끝나는 사건,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민족통일보다는 민족복음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2. 남북화해, 혹은 민족 통일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3. 민족 통일의 시기는 메시아의 도래시기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기대해야 합니다.

#### IV. 통일신학과 통일노력

이스라엘의 남북 분단은 집권자의 권력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한국의 남북 분단도 민족 지도자의 사욕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의 역할이 축소되고 백성들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통일에 있어서 국민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각성해야 합니다.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상치만 더할 뿐 통

일에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종족이나 지리적인 면에서 민족동질성을 강조한 '한형제 사상'을 따라 비방이나 원수로 여기는 일을 삼가고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아 연결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 이를 고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통일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높은 신앙을 보여줍니다. 인간적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 부록 - 성경이 말하는 살롬 사상

'살롬'은 조화와 질서 통일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상태, 인간관계에서는 화평의 상태, 공동체에서는 온전한 화합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인사말로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살롬이 깨어졌습니다. 그

리고 전쟁은 살롬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남북 통일의 열쇠는 좋은 정치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화(요14:27)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진정한 살롬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롬3:25). 진정한 평화는 복음 안에서 공의와 공평, 사랑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되 불의와 야합하면서 무력으로 쟁취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화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화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좀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총동원하여 사랑과 공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비전있는 천국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

'비전있는 대학부'라는 주제로 2월 21일(목)부터 2박 3일간 양수리수양관에서 있었던

### 대학부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 “내가 약할 때 강함주시는 주님”

음영경

**대**학입시에 실패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마냥 위축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수련회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리라는 기대가 없었기에 참석하는 일부터가 갈등이었다.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나는 혹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의 의심까지 들었다. 아마 "함께 은혜를 받고 각자의 고민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자"라고 하며 권유한 우리 '온유조'형제들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계속 좌절과 실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너무나 큰 주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와 약한 나에게 강한 힘이 되었다. 그 자비의 강물 곁에 심기운 나무처럼 싱싱하게, 열매맺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주님께 간구하였다.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흐린 날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노라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침묵하실 때에도"라는 어느 수용소 벽에 남겨졌다는 명언도 내 신앙고백을 대신해 주었다.

하나된 형제·자매들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다짐하고, 간구한 것들이 강함주시는 주님을 힘입어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체현되어가길 기대한다.

####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친해질 수 있었던 수련회”

박은영

**친**구의 권유에 마지못해 참석한 나는 2박 3일의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섰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걱정은 기쁨으로 바뀌어갔다.

임원들의 철저한 준비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게임들. 그 속에서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며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 조별로 장점을 발견해서 이야기 했던 "Somethig Special" 시간이나 공동체 훈련을 통해 언니, 오빠들을 잘 알 수 있게 된 것, 49칸이 그려진 종이를 통해 기도제목을 교환하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제시된 단답식 질문에 대답함으로써 자신을 소개하던 시간들, 한밤중에 번저간 게임의 열기... 이 모든 것이 수련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하나 잊지 못할 것은 서로를 향한 기도와 축복의 시간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으로 축복의 말을 건넸으며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일일이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 물론 우리도 한 마 음과 한 목소리로 그분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마음이 뜨거워진 시간이었다.

나는 참석한 모두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모습 속에서도 은혜를 받았다.

시종일관 즐거웠던 속에서도 질서있고 알차게 지낼 수 있었던 수련회였다.

#### “비전의 청년 다니엘로부터 받은 도전”

채수호

**“비**전있는 대학부"라는 주제로 가진 이번 대학부 겨울 수련회의 메시지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되었고, 다니엘서를 통독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비전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며, 뜻을 세우는 첫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함을 청년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단9:27).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내일 없는 종교인'이라고 하신 원호목사님의 말씀이 새로웠다.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노력을 하되 야곱이 압박강가에서 씨름하듯 집념과 큰 결단을 매순간해야 할 것임을 배웠다.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다니엘처럼 우리나라를 향한 시대적 소명을 새로이 할 수 있었던 특강시간은 21세기를 살아갈 젊은 이로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가를 성경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었다. 특별히 "아직 젊은 여러분들은 절대적 진리가 아닌 것에는 지나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며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권면하신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런지도 해답을 얻게 되었다.

■ 필그림예술선교단 인도 순회공연 보고서

# “한달간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필그림예술선교단원 16명은 1월 16일, 인도로 출발하였습니다. 공연을 통해 그곳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8일에 도착하여 봄베이, 바이클라, 첼부, 프루바스토, 차우나시골, 한일합섬 빠탈강가 공장, CBD슬럼의 산속, 마테란 꼭대기 학교, 보르볼리의 병원과 나환자촌, 아잔타의 아우랑가바드 공원 등에서 12회에 걸쳐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지나는 동안 저희들은 잠을 설치자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취침시간은 보통 3시간정도로 만족해야 했으니까요. 2박 3일을 가야하는 먼 거리의 이동도 있었고, 그 더운 나라에서 땀속까지 시려오는 추위에 밤새 떨던 적도 있었습니다. 모기떼에 시달리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으며, 관광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셨고 매순간의 일정을 인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감사한 마음으로 벅차서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시골의 소동집과 구원을 기다리는 인도사람들의 눈망울, 산을 오르기 위해 타야했던 말, 점심을 먹다말고 원숭이의 공격을 받아 피신을 해야만 했던 일 등. 인도에서의 일들이 그 독특한 냄새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칩니다.

1월 28일에 꼭꼭였던 일정대로 공연을 마치고 단원 중 11명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에 남은 5명은 슬럼거지마을(CBD)에 천막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건축비는 25만원 정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마을 어린이 100여 명

이 머리에 돌을 이어 나르고, 물을 길러와 바닥 공사를 쉽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정 중 가장 비중을 두었던 것은 5년 전 힌두교인들에게 순교당한 ‘케빈’이라는 남자의 농장을 기도원으로 바꾸는 약 10일간의 공사였습니다. 서울교회의 후원과 선교단의 회비를 모아 4만루피(약 백만원)를 들여 인도 기술자들(일당 2500원)이 일주일간 공사를 하고, 우리가 함께 도와 떠나오는 날에는 눈물로 개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달의 일정 속에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이 작은 무리들을 성령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복음을 처음 들은 2천 여 명의 인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과 그곳에서 일하는 인도 청년들(마리오, 수라지, 디팍, 테리, 마힌두라, 디모데, 나이두, 비나이)과 공숙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인도 사역의 보고회는 3월 17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후원하여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옥겸(집사, 필그림예술선교단 연출자)

◆ 민족교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

## 3월 25일에 개강하는 제 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 할 일                   | 요일, 시간, 봉사할 곳               | 필요한 인원          |
|-----------------------|-----------------------------|-----------------|
| 식사 재료 구입              |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전               | 두 분 (운전 가능한 분)  |
| 강의안 편칭, 제본            | 토요일 오후 3 - 5시, 사무국          | 여집사님 두 분        |
| 교재 및 유인물 준비           | 주 일 소망부 집회 후, 소망부실          | 모세선교회원          |
| 식사준비                  | 월요일 오전 6시 - 10시, 별관         | 한나, 에스더 회원      |
| 집꾸리고 이동하기             | 월요일 오전 9시 - 11시, 사무국        | 남자 성도 다섯 분      |
|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YMCA      | 남자성도 스무 분       |
| 차량관리(Y정문, 지하, 양지 아파트) | 월요일 오후 1시 - 3시, 5시 - 6시     | 남자 성도 여덟 분      |
|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 안내위원 열 두 분      |
| 등록 및 접수               | 월요일(첫 두주) 12시 - 오후 4시, YMCA | 열 두분(3인 1조로 4조) |
|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 여집사님 네 분        |
| 교회에 남아서 돕는 일(전화안내)    | 월요일 오후 1시 - 4시, 사무국         | 여자 성도 한 분       |
| 배식, 음료수 대접            |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 한나, 에스더 회원      |
| 교재 및 유인물 배부           |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 모세선교회원          |
|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건 철수     | 월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20분      | 남자 성도 열 분       |
|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6시, YMCA    | 남자성도 스무 분       |
|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 월요일 오후 4시 - 7시, 사무국 · 지하    | 남자,여자성도 각 세 분   |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일에 밀거름이 되고자 개최하는  
목회자 신학 세미나.  
민족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에  
자신의 은사를 살려 작게라도 참여해 보자.

문의는  
최종시 장로(한국교회갱신연구원 부원장)나  
김명현 목사(한국교회갱신연구원 지도)에게!

• 제 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안내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 517-7651 ~ 5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룰 수 있도록
2. 계절학교를 마친 교회학교들이 결실할 수 있도록
3. 해외에 계신 이종운 목사님 일행과 교우들을 위하여
4. 필그림예술선교단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 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
|         | III부 오후 2시   |
| 찬 양 예 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 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